

제3회 모의고사

(85분)

제 1문

Kenneth N. Waltz는 신현실주의를 제시하면서 국제체제 구조로서의 극성(polarity)이 국제적 안정 또는 불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양극체제가 안정적이라는 시각에서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지속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30점)

- 1) 월츠가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지속성에 회의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0점)
- 2)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지속성을 미국 예외주의, 연성균형, 균형방지, 책임전가, 연성권력의 시각에서 설명하시오.(20점)

I. 서론

왈츠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 하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추구할 때 세력균형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국제정치의 필연적 법칙이기에 세력균형은 깨어지더라도 반드시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역사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일극체제가 없었으며, 따라서 탈냉전 하 일극체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렇지만 패권안정론 등에서는 일극체제가 양극체제보다 더 안정적이며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시각도 보인다. 특히 미국의 일극적 패권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다양한 주장들도 있다. 이러한 논쟁은 세계적 안보정세의 전망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지속성에 회의적인 이유 : 월츠의 시각

왈츠는 냉전기 미소 간의 양극체제는 안정적이어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탈냉전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예측은 한계를 보였다. 그렇지만 탈냉전으로 인한 일극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으며 다시금 세력균형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았다.

1. 월츠의 신현실주의와 양극체제의 안정성

왈츠는 국가중심적인 고전적 현실주의를 극복하고 국제체제 중심의 신현실주의를 제시하였다. 그는 국제체제가 체제구조와 행위자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전자가 후자에 일방적 영향을 미치기에 결정적 변수라고 보아았다. 특히 그는 국제체제의 구조로서의 힘의분포 상태인 극성이 국제적 안정을 좌우하며, 양극적인 세력균형 체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았다. 양극체제는 동맹국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서로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 오인이나 오산에 의한 전쟁 가능성이 낮고, 미소 냉전기의 ‘장기간 평화(long peace)’도 2개 강대국에 힘의 집중, 즉 양극체제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2.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지속성의 한계

왈츠는 냉전시대의 양극체제가 탈냉전 도래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변화되었으나, 이러한 체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한시적일 뿐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무정부상

태 하에서 패권국의 출현하면, 그의 의도나 정책과 무관하게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며, 이에 따라 패권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력균형이 필연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았다.

윌츠는 패권국가가 진중하고, 자제하며 행동하더라도, 약한 국가들이 패권국가의 미래 행동에 대하여 우려하여 세력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동질화의 명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성공을 본받아 그 내부적 체제를 정비하여 미국의 힘을 따라갈 것이라보 보았다. 또한 균형화 명제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이 군사동맹 내지 정책제휴를 통해 미국에 대응하는 세력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았다.

윌츠는 미국의 패권은 쇠퇴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패권국 미국과 이에 대응하는 다른 국가들 간의 힘의 격차 축소는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하도록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권적 질서 유지 위한 막대한 군비의 지출, 대외팽창에 따른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비용 등 직접비용이 패권국의 국력자원을 잠식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패권국 유지 과정에서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 우위의 장점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되는 간접비용으로 인해, 결국 패권국의 비교우위가 상실되어 다른 국가들의 추격을 허용할 것으로 보았다. 윌츠는 미국 중심 일극체제가 우선적으로는 다극적 세력 균형체제로 전환되려 하는 긴급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윌츠의 경우 세력균형이 필연적 역사법칙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가 바람직하게 생각한 냉전기 양극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자 또한 실제로는 장기간 지속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선 탈냉전 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전한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양극체제로 전환될지 아니면 또 다른 세계대전에 직면하게 될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나아가 다음에 등장할 양극체제가 과연 장기간 지속될지에 대한 회의도 여전하다.

III.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이유 : 미국 예외주의 등

탈냉전기 일극체제는 미국의 패권쇠퇴나 세력균형의 회복력에 의해 새로운 일극체제로 이전되거나 아니면 세력균형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자신 중심의 일극체제를 지속시킬만한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1. 미국 예외주의

미국으로 힘의 집중이 일정한 분기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세력균형이 적용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본다. 또한 미국 중심 단극체제가 기능적으로 순조롭게 작용하기에, 이것이 양극체제만큼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나아가 탈냉전기 미국의 패권은 역사상 초유의 특성을 가지며, 단명하였다고 주장되는 역사상 영국의 패권과는 다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향후 지정학적 여건, 세일가스 등 자원 우세 등으로 어느 국가도 따라올 수 없을만큼 유일한 ‘우연한 초강대국’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 연성균형

패권국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 제2 부류의 국가들의 안보나 핵심가치를 위협하지 않기에, 미국에 대해 강력한 경성균형이 아닌 낮은 수준의 연성균형 정도의 불만이나 저항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가운데 다른 강대국들에게 비위협적 패권국으로 행동하고, 다른 강대국들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안보가 크게 위협되지 않기 때문에 세력균형 시도의 시급함이 약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의 지속성은 단지

미국의 국가경영에 따라 좌우될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3. 균형방지

영국은 필요시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였으나, 탈냉전 하 미국도 다른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1871년 독일통일 이후의 비스마르크는 외교능력을 발휘해 프랑스 등이 대독일 균형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 왔다. 미국도 이러한 비스마르크적 외교능력을 발휘해 세력균형 위한 동맹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축(hub)으로, 다른 국가들을 바퀴살(spoke)로 하여 자신에게 연결시키는 방식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4. 책임전가

패권국 미국에 대항하는 균형화의 혜택은 참가국들에게 공동이익이지만, 대항에 대한 책임전가는 해당국가에의 개별적 이익이기 때문에, 균형화 보다는 책임전가를 선택하게 되어 미국에 대한 균형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세력균형 위한 대항동맹을 맺지 않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다가 두 차례의 대전쟁을 치르고서야 균형화로 나아갔다. 이처럼 미국에 대항해야 할 국가들도 책임전가를 시도하며 세력균형을 회피할 수 있다.

5. 연성권력

미국의 경성권력으로서의 경제력, 군사력 위상이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 쇠퇴하였지만, 미국이 갖는 문화, 가치, 이념, 정책, 제도 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존중받으며 매력을 발휘하는 연성권력이 매우 우세하다. 바로 이러한 연성권력이 경성권력 쇠퇴를 충분히 보완하여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은 지속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경성권력의 중요성이 쇠퇴하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연성권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가장 강력하였다. 그러나 냉전기 소련의 도전, 국력 신장에 성공한 서방국가들의 존재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탈냉전으로 재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지속성은 확정되었다는 향후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가변적일 수도 있다.

IV. 결론

오늘날 미국의 일극적 패권체제가 지속될지 여부는 미중관계에는 물론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외교전략 선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도전으로 미국의 패권이 현저히 쇠퇴하거나 나아가 이전된다면, 그동안 유지하여 온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자주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거나 중국에의 부분적 편승을 고려하는 해징도 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반면에 미국의 패권이 강력하게 지속된다면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경제협력에 치중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할 것이다.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중차대한 외교적 과제인 것이다.

제 2문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세계적 대전쟁으로 비화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20점)

- 1) R. Gilpin의 패권전쟁론 시각에서 미중 간의 패권전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 2) 미중 간의 패권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르간스키의 세력전이론, 모델스키의 장주기론, 앤리슨의 평화열쇠론을 통해 제시하여 보시오.(10점)

I. 서론

패권전쟁이라는 투키기데스의 함정은 필연적인지 피할 수 있는지가 주요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패권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이러한 논란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패권전쟁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길핀의 입장과 피할 길이 있다는 다른 입장을 함께 살펴본다.

II. 길핀의 패권전쟁론과 미중전쟁

1. 패권전쟁의 원인으로서 패권쇠퇴

길핀은 패권전쟁의 근원으로서 패권쇠퇴를 제시하였다. 그는 절대적인 패권쇠퇴의 이유로서는 패권국의 기술혁신 약화, 과잉소비, 생산 또는 제조업 공동화, 패권유지 위한 과비용을 제시하였다. 상대적인 패권쇠퇴의 원인으로는 불균등 성장의 법칙과 패권국의 기술 해외이전, 그리고 신흥 강대국 출현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경우 과잉소비에 의한 무역적자 확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세계적 안보·경제 공공재 제공 위한 과다비용 지출 등 문제가 심각해져 왔다. 또한 미국이 낮은 경제성장을 하에 있을 때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을 하여 양국의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었다. 중국은 미국의 교역규모를 따라잡았고, 구매력지수 고려 시 미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량을 추월하였으며,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자 대미 최대 무역흑자국으로서 미국의 경제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2. 미중 패권전쟁의 전망

길핀은 패권전쟁이 진행되는 동태적 과정으로서, 체제 균형상태(기존 패권체제) -> 체제 내 국력 재분배 -> 체제 불균형 상태 -> 패권전쟁 -> 체제위기 해소(새로운 패권체제)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미중관계를 보면 대체로 체제 내 국력 재분배에서 체제 불균형 상태로 이전되고 있어 보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 중심 경제패권체제가 흔들렸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도전에 직면하여 최근 들어 대중 무역보복을 강화하였으며, 중국에 의한 일련의 양보조치로서 잠정적 타결은 이루었다. 그러나 길핀의 시각에서 보면 패권전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다. 그는 패권전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여 왔다. 만일 미중 패권전쟁이 발생한다면 패권국과 도전국 모두에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이 될 것이며, 패권국과 도전국 모두 생사가 달려 있어 전쟁의 수단 및 지역에 무제한적인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핵전쟁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미중 간의 패권전쟁 회피 가능성 분석

1. 세력전이론

오르간스키의 세력전이론은 국가 간 불균등한 성장으로 인해 기존 패권국과 도전국의 힘이 균형화 단계에 이를 때 패권전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평화의 조건도 있다고 보았다.

중국의 도전이 불가능할 만큼 미국의 힘이 우세하여 위계적 질서를 계속 유지하면 된다. 이를 위 죄근 미국은 대중 경제압박 및 보복 조치들을 실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도록 하고, 중국의 기술도입이나 환율조작을 제약하여 경제성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만일 도전국 중국이 미국 중심 기존 패권질서에 대한 불만을 적게 가지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패권이 중국으로 평화적으로 이전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양국의 상호협력 경험과 신뢰의 축적, 중국의 미국을 위한 혼신과 지원 경험, 민주화 통한 체제이념적 이질성 완화 등 필요해 보인다.

2. 장주기론

모델스키의 장주기론은 100년 단위의 세계경제 순환 속에서 패권국도 부상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그 와중에 패권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여 왔는 바 2030년 이전에 패권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세계경제의 순환주기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길핀의 주장처럼 패권전쟁이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며 피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일정한 주기에 의한 세계전쟁이 있었으나 단순 반복은 아니며, 세계체제 변동의 학습효과에 의한 긍정적 피드백이 세계대전 회피를 가능케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평화적 패권변동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였다.

3. 평화열쇠론

앨리슨은 패권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필연적이지 않다며, 평화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4개의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들을 통하여 대전쟁을 피할 수 있는 평화의 열쇠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열쇠들이 미중 패권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고 보았다.

15세기의 포르투갈 vs. 에스파냐 갈등은 교황의 권위를 통해 해결되었는데, 이는 더 높은 권위 가진 UN, 국제법 등 제3자의 역할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부터 현재 까지 영국 및 프랑스 vs. 독일 갈등은 EU 내의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되었는데, 개별국가 행동 제약하는 정치, 경제, 안보적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초 영국 vs. 미국 갈등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평화로운 패권 이전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는 정치인들의 능수능란한 수완과 판단, 문화적 공통성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 vs. 소련 갈등이 평화적 냉전종식으로 귀결되었는데, 핵무기의 존재와 억제력, 경제적 상호의존, 동맹체제, 국내적 경제성장 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미중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 vs. 소련 갈등 사례에서의 평화의 열쇠 적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V. 결론

세계적 대전쟁의 발발 여부를 일극적 패권의 유지나 쇠퇴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은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한 시각이다. 신현실주의적 극성론, 신자유주의적 과정론, 신고전주의적 이익균형론, 나아가 구성주의적 정체성 등도 전쟁 여부를 설명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전쟁을 결정론적으로 보지 말고, 다양한 이론들을 활용해 피할 수 있는 길을 중첩적으로 발견해 낼 필요가 있다.

제 3문

Stephen Van Evara의 방어적 현실주의는 공격-방어 균형 그리고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이 안보딜레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 특히 공격-방어 균형에서 공격우위의 군사기술이 안보딜레마를 심화시켜 전쟁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20점)

- 1) Stephen Van Evans의 시각에서, 공격우위의 군사기술이 국제체제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로와 안보딜레마를 악화시켜 초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 2) 국가는 안보를 극대화시키려는 현상유지적 존재라는 방어적 현실주의의 입장을 공격적 현실주의(John Mearsheimer)와 신고전적 현실주의(Randall Schweller) 시각에서 각각 비판 하시오.(10점)

I. 서론

케네스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 극성의 간결한 이론을 제시하였기에 개별 국가들마다의 다양한 외교정책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극성 외의 다른 추가 설명변수를 도입하는 방어적, 공격적, 신고전적 현실주의가 등장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다.

II. 공격우위 군사기술의 국제체제 안정성 저해와 결과

1. 공격우위 군사기술에 의한 국제체제 안정성의 저해 경로

방어적 현실주의에서는 공격·방어 균형이 공격우위일 때 안보딜레마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양극체제 하에서도 공격우위가 방어우위보다 더 위험하다. 물론 다극체제의 경우도 역시 공격우위가 방어우위보다 더 위험하다. 국가는 방어우위 군사기술보다 공격우위 군사기술 하에서 더욱 공격적이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체제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4 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에 대한 잘못된 낙관주의(false optimism)이다. 공격우위 하에서는 전쟁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전쟁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전쟁에 대한 낙관론이 외교와 타협에 의한 갈등 해결 보다 전쟁 통한 해소를 유인해 전쟁빈도가 증가한다. 더 많은 군사력 사용을 선택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한다.

둘째, 선제공격하려는 전술적 성급함(jumping the gun)을 유발한다. 선제공격을 통해

상대방에 치명적 타격의 이점이 있다고 보아, 대화나 협상보다 전술적, 군사적 시각에서 문제 해결 시도하도록 한다. 상호 간에 선제공격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면, 더욱 선제공격의 이점이 부각되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셋째, 세력균형 변화(power shift)에 적응 어려움이다. 쇠퇴하는 국가는 부상하는 국가에 대한 예방전쟁의 ‘기회의 창’이 있으나, 이 기회를 놓칠 경우의 ‘취약성의 창’이 열리는 데, 어떠한 경우든 모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을 강화한다.

넷째, 자신이 정복한 주변 국가의 자원을 계속 축적(cumulative resources)하여 추가팽창 하도록 한다. 다만, 대외팽창이 항상 해당국가의 가용 자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복한 국가에서 행정력, 군사력에 의한 추가비용 지출이 필요한 것이다.

2. 공격우위 하 안보딜레마 악화로 인한 결과

이렇듯 공격우위 상황 하에서 안보딜레마가 악화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즉, 더욱 기회주의적 팽창, 자신의 생존 위해 팽창, 취약성 증가로 다른 국가 생존 노력에도 격렬히 저항, 선제공격의 이점 증가, 예방전쟁의 위험 증가, 강압적 행동 유발, 협상외교 통한 외교갈등 해소에 한계, 국방 관련 비밀 증가로 오인과 오판의 가능성 증가, 군비경쟁 격화 등이 그것이다.

III. 방어적 현실주의에 대한 공격적 및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비판

1. 방어적 현실주의 : 현상유지적 국가에 의한 안보의 극대화 추구

방어적 현실주의에서는 국가가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유지적 존재라고 본다. 그렇지만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에서는 현상유지적 국가들 사이에서도 안보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국가가 현상유지적 군사력을 건설해도 다른 국가는 이것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협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 의도에 대한 정보의 불충분성, 불확실성 때문이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국가전략으로서 안보딜레마의 완화와 세력균형을 중요시한다. 안보딜레마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격우위 보다 방어우위가 필요하고 나아가 공격·방어의 구분 가능성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들은 세력균형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내적 또는 외적 균형 추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제체제는 방어우위의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하고 공격우위의 다극체제가 가장 불안정하다고 본다.

2. 공격적 현실주의 : 현상타파적 국가에 의한 생존의 극대화 추구

공격적 현실주의에서는 국가가 생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타파적 존재라고 본다. 무정부적 상태 하에서 국가들은 일정 정도 공격적 군사력을 가지며,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국가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본다. 국가들은 생존의 위협을 확실히 벗어나기 위하여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이러한 가운데 부의 극대화, 지역 패권국, 막강한 육군력, 핵의 우월성을 추구한다고 본다.

특히 세력균형의 정도를 넘어서서 위계적인 지역패권국이 될 때까지 현상타파적이 되며, 이를 달성한 이후에야 현상유지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자신의 지역에서 패권국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도록 역외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보 본다. 국제체제는 균등한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이고 불균등한 국제체제가 가장 불안정 하다고 본다.

3. 신고전적 현실주의 : 현상유지 혹은 현상타파 국가에 의한 이익의 극대화 추구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국가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안보나 생존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내적 정치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국가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는 필요시 현상유지적이 될 수도 있고 현상타파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협적인 강대국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편승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는 세력균형보다 편승이 더 보편적이 현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편승은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현상유지적 이익을 위한 유화적 편승과 다른 비안보적 이익을 위해 때로는 현상타파적이기도 한 편승으로 나뉘어진다. 국가는 대체로 안보와 비안보적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며, 안보 우려가 적을 시 비안보적, 물질적 이익 위한 편승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신고전적 현실주의에서는 현상유지적 국가들이 많은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이며, 현상타파적인 국가들이 많은 다극체제가 가장 불안정하다고 본다.

IV. 결론

방어적, 공격적,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월츠의 신현실주의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제기되었던 ‘비결정성(indeterminacy)’ 또는 ‘불완전한 전달벨트(imperfect transmission belt)’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각들을 보임으로써 ‘불일치(incongruity)’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